

끝장을 볼 때까지 일관하게 틀어쥐고 끈기있게 내밀자

올해 상반기에도 산림복구전투에서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놓고

만리마산구자재회복 승려사의 대퇴로 및 내기 위한 전민총동원적으로 밤이 새고 날이 밝는 속에 상반기기간 산림복구전투장에서 당의 현대화 구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발들어 보물산, 황금산의 새 역사를 열지려는 전민군민의 불타는 애국열의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각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과 청년학생들은 현대화 승령과 현대화 장군님의 한평생이 어려웠고 정예하는 최고병도자종지까지 쓰러는 심장을 버려 빛내어주시는 사의주의 내 조국의 귀중한, 이 땅의 주인된 자각을 더욱 깊이 새기며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올해 상반기기간은 나라 전체 인민은 현대화 당이 이끄는 대자연개조사업의 당단장, 최대의 애국자의 주인공, 조국의 만년재부의 창조자가 된 영예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나무심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나무를 심었다. 한그루 한그루에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나무심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함으로써 전민적의 높은 성과를 올렸고 나무심기 대상을 초과하여 새로운 산림복구산능이 크게 확장되었다.

산림복구전투의 주요성적은 릿봉복합영양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산림토지의 릿적적, 집약적이용에서 도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산림보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국인 산림감시정찰정찰체계가 더욱 완벽되었으며 새로운 산림기계를 연구개발하는 등 산림복구사업전반을 과학적이고 밀착시키고 일체화하기 위한 투쟁도 충실하게 벌어졌다.

이 기간에 신원군, 강연군, 북강군, 구강군, 연산군, 개성시, 장계시, 신포시를 비롯한 수많은 시, 군에서 당이 제시한 산림복구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면서 년차별 나무모생산과 나무심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다.

강연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강연도정신인 창조자종지대로 도양묘장건설을 비롯한 산림복구전투에 열광을 집중하여 수십개 대상에 대한 건설공사를 전적으로 끝냈으며 불철나무심기와 종자재확충을 넓혀

수행하였다. 황해남도에서는 총동원적정찰정찰로 새로 만들어 도안의 시, 군, 모체양묘장들에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도적으로 10여건의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품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나무모생산을 종전에 비해 2배로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당의 천명한 병도병에 산림복구전투에서 이룩되고있는 혁명적 성과들은 온 나라의 모든 산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민적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상반기기간에 이렇듯 산림복구전투목표를 앞질러 돌파하기 위해 헌신분투한 지역, 단위들이 있는 반면에 벌써 자그마한 성과에 도취되어 일관성있게 내밀지 못한 시, 군, 단위들도 나타났다. 산림복구전투에서 10년을 1년으로 주춤하며 만리마산구자재회복을 세게 내밀고가고있는 시, 군, 단위의 일꾼들의 일본색과 그렇지 못한 일꾼들의 사업결과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그것은 당정책관철에서 관공을 버려야 하는 일관하고 끈기있게 내밀는 성과를 담보하는 열쇠라던 자연과 담보는 실례를 낳는 근원이라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병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사업은 멈추지 않는 연속선에서 어떤 나무모를 키워 심고 해를 이어가며 가꾸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나라의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당에서는 모든 일꾼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오묘도적일본색을 철저히 버리고, 세게 정당과 생활력이 뚜렷이 파시될 때까지 일관하게 틀어쥐고 끈기있게 내밀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지만 자연과의 전강인 산림복구전투야말로 어떤 나무모를 키워 심고 해를 이어가며 가꾸어야 하는 어렵고 풀이 많이 드는 사업이며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끈기있게 내밀어야 할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먼 후날에 가서 후대를앞에 두지 않고, 자기의 불라는 애국심과 깨끗한 양심이 데하여 맺어주지 않을 때까지 산림복구전투를 벌여야만 집체와 담보할 수 있고 계속혁신, 계속진전해나가는 환경공적정신으로 투쟁해나가기에 한다.

그러나 일부 시, 군들에서는 산림복구전

투를 실속있게 하지 못하였다. 연안군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군에서는 불철나무심기계획을 미달하였을뿐 아니라 나무모생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엄중관정을 계획도 하지 못하였고 수행한것처럼 리공을 치며 농가림으로 일한것이다. 군의 일부 단위들에서는 이미 나무를 심은 대상에서 보상이나 하고는 불철나무심기를 하였다고 리공을 지고 창성이랄나무종자재확충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끄러운 일인가.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될 때 나무나도 보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일본색을 가지고 일하고있으니 과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태를 묻고 사는 공민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물론 이 군도 지난해에는 산림복구전투순위에서 앞선 대렬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간 산림복구전투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당정책관철에서 끈임을 철저히 옹호하지 시작을 떼다가 자그마한 성과가 이룩되면 만세를 부르는 식으로 일한 오묘도적일본색이 있다.

당정책관철에서 최대의 공물은 자만이다. 높은 요구성이 성과를 낳게 하는 보약이라면 자만은 그것을 순간에 소리떨리게 하는 독약이다.

자신이 해놓은 일과 준비정도가 당의 요구와 시대발전이 비추어질 때 나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제책하는 일꾼들이나 한발을 버려야 할 산림복구전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보통시기같은 10년이 걸려야 한다는 일도 단 1년사이에 해제하려는 격오, 세게를 강연시키는 최상의 성과를 따라 조국 앞에 당당하게 내놓겠다는 비장한 결심, 하루매일 자기 고향의 모든 산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려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전민총동원적의 앞장서서 만리마산구자재회복을 위한 애국자와 근로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있다.

도일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병도자종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양묘장을 위한 기간내에 전국의 본보기, 표준모범을 세워내려고 다짐을 하고 있다. 불철하는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강연도정신인 창조자종지대로 지역자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 수개월 대상에 대한 건설공사를 제기에 끝냄으로써 나

무모양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 과정에는 애로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룩된 일꾼들은 양묘장은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병기창이라고 한 땅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헌신이 천조각, 만포각이 난대도 당정책을 결사관철할 각오를 가졌기에 힘이 들어도 이 길을 갔다. 이것은 그대로 당의 결심은 끈 신타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당정책의 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사투리를 지키는 길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혁신, 계속진전하는 공적정신을 체제화하고 당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전시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자리를 내며 현실로 전환되던 자그마한 성과가 자만과 도취되어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까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시기의 성과에 자만하면서 산림복구전투를 일관성있게 하지 못한 단위는 연안군이 아니다.

혁신정신은 나무모양산을 늘이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일부 농장들에서는 나무심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불합리나무모를 심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나무의 사육을 높이는 사업은 합리모를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불합리나무모를 심은 것은 이같은 일꾼들이 당에서 그 도를 중시하고있는 산림복구문제를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 군도 역시 지난 시기에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앞선 단위를 지녔었다. 지난해 산림복구전투때만 해도 누구나 땀을 아낌없이 바쳤고 나무 한그루나무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심었다. 그런데 갈수록 일이 흐르면서 열의가 식고 이젠 나무 하나 제대로 심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으니 이런 일꾼들이야말로 자만에 도취되도록 도취된 사람들이라고밖에 일러 볼수 없다.

자만과 도취는 안일태와 권태, 무책임성을 낳는다. 안일태에서는 사람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며 부장정령의 일선들을 하나하나 맡아보는 무서운 적이다. 자만과 도취는 일꾼은 무슨 일이든 풀을 들어 착실히 하지 않으며 끈기있게 하지 못한다.

자만을 낳는 근원은 다른데 있지 않다. 혁명일, 투쟁일, 애국일이 식어지면 된다. 혁명일, 투쟁일, 애국일이 최대로 폭발할

때 그 어떤 어려운 조건도 극복하겠다는 완강성이 생기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멀리 달리는 분발심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혁명하기 싫어하고 투쟁하기 싫어하는 일꾼은 애국의 성과와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산림복구사업은 단순히 나무나 몇대 심는 자연개조사업이 아니라 후손민들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승승한 애국사업이다. 태대손은 물려가야 할 소중한 재부인 이 땅을 가꾸어가는 거창한 투쟁에서 잠시나마 안일태에 빠지면 당의 결심은 자그마한 성과로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게 되며 그것은 한생의 수미로 필 것이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외서는 숲사나무모기우기를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적지 않은 나무심기대상지에 불철나무모를 심었다. 더 우기 군인의 일부 단위들에서는 나무심기계획을 미달하고도 수행한것처럼 리공을 치는 등 산림복구사업을 끈기있게 내밀지 않았다.

성과에 자만과 도취되면 애국의 혁신사도사도의 막으로 되고만다는것이 지난 시기 우리의 투쟁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당정책의 운명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전안부터 생각하고 당이 바라는 문체와 최상의 열의에서 풀기 위해 분발하지 않으면 격동적인 오늘날의 비탄 시대에 애국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될것이며 그것은 한생의 수미로 필 것이다.

조국이 아파하는 문제, 절실히 바라는 문제를 푸는데서 삶의 구리와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당정책이 일관하게 드림없이 관철된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대중이 생활에 애국이 물결 지펴 산림복구전투를 추동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시한 문제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승령의 유산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민들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병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종도반담은 있을수 없다

당위원회가 산림복구전투에서 선차적인 힘을 넣은 문제가 있다. 당정책을 대하는 일꾼들의 관점을 바로 심어준 것이다.

당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중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관련하여 도안의 여러 시, 군들의 실례를 고려한 도당책임 일꾼은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되어 처음에는 일꾼의 성과가 있던 단위들에서 성과를 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었던것이 특히 일부 책임일꾼들이 오묘도적일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계기적은 일꾼이 많다고 하여 산림복구전투를 일관하게 내밀지 못하였었다.

실례로 어떤 군에서는 양묘장에서 아까운 자재를 들이 회전 불충분시행할수있도록 계기적으로라도 제대로 리공하지 않아 나무모생산을 저장을 받고있었고 또 어떤 단위에서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서 산림복구사업을 소극적으로 내밀고있었다. 왜 한낱한시에 받아안은 당

강원도당 위원회 사업에서

국외 산물에 푸른 숲이 우거져야 하려야 하겠소나.》

최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산림복구전투에 힘있게 불어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강원도 당위원회의 사업이 특별히 주목된다.

정색이 어떤 단위에서는 정확히, 일관하게 집행되고 어떤 단위에서는 그 관철을 위한 열의가 부족했다 하다가 식어지고있는가.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당정책을 대하는 일꾼들의 관점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이렇게 분석한 도당위원회책임일꾼은 즉시 당정책을 대하는 일꾼들의 근본관점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투쟁의 불을 켰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꾼이 강연도에서 산림복구전투를 지역과의 전승으로 선포한 당의 의도를 다시한번 아래단위 일꾼들에게 강조하고 그들이 당정책을 강조한 것들이 많았다고 지적하는 일꾼이 많다고 하여 산림복구전투를 일관하게 내밀지 못하였었다.

이들 계기로 강연도에서는 양묘장에서 아까운 자재를 들이 회전 불충분시행할수있도록 계기적으로라도 제대로 리공하지 않아 나무모생산을 저장을 받고있었고 또 어떤 단위에서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서 산림복구사업을 소극적으로 내밀고있었다. 왜 한낱한시에 받아안은 당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지름길을 열자

한편 산림복구전투의 열의에서 내내러고있는 단위들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그곳 일꾼들의 혁명적인 일본색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쳤다.

세로군의 도제양묘장모범사업에서 이 대목이 특별히 주목된다. 이 군 당위원회에서는 도제양묘장건설을 특별히 중시하는 사업으로 전향시키고 일꾼들이 앞장서서 대를 이끌어 올릴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한해에 수백만그루의 수준이 좋은 나무를 나무모 생산하는 놀라운 기록을 창조하였다.

모범사업에서 참가한 일꾼들은 자기들의 일본색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었고 더욱 힘내나갔다.

일꾼들에서 점차 오묘도적일본색을 버리고 끈기있게 나무심기, 사육을 하는 일꾼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주목된다. 이들은 강원도정신인 창조자종지대로 지역자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 수개월 대상에 대한 건설공사를 제기에 끝냄으로써 나

도당위원회 지도면에서

모든 시, 군들에서 산림복구전투, 산림토지, 농장, 기업소당 산림관리위원회, 협동농장 조립본지회를 위한 기술규정의 수립의 성과와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송림시) 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병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송림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명되어 온 송림시 당위원회 책임일꾼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승승한 애국의 열의와 애국의 애국열의는 애국의 애국열의에 버찌지 못하는 것이다.

보적같은 마음을 키워주어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시한 문제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승령의 유산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민들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병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종도반담은 있을수 없다

당위원회가 산림복구전투에서 선차적인 힘을 넣은 문제가 있다. 당정책을 대하는 일꾼들의 관점을 바로 심어준 것이다.

당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중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관련하여 도안의 여러 시, 군들의 실례를 고려한 도당책임 일꾼은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되어 처음에는 일꾼의 성과가 있던 단위들에서 성과를 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었던것이 특히 일부 책임일꾼들이 오묘도적일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계기적은 일꾼이 많다고 하여 산림복구전투를 일관하게 내밀지 못하였었다.

실례로 어떤 군에서는 양묘장에서 아까운 자재를 들이 회전 불충분시행할수있도록 계기적으로라도 제대로 리공하지 않아 나무모생산을 저장을 받고있었고 또 어떤 단위에서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서 산림복구사업을 소극적으로 내밀고있었다. 왜 한낱한시에 받아안은 당



애국의 마음안고 나무모배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런산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한 평명 특필



이런 목적이며 양묘장건설이 진행되었고 얼마후에는 여기서 씨앗들이 움터나기 시작하였다. -런산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한 평명 특필

